도내 대학 '글로컬대학 30' 예의주시

교육부, 지방대 혁신위해 2027년까지 30개 대학 선정
'선택과 집중'으로 5년간 각 대학마다 1000억원 지원
지역산업·사회와 연계 지방대 경쟁력 키우는게 골자

교육부가 2027년까지 지방대 30곳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제주지역 대학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글로컬대학 30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첫 공청회를 열어 관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글로컬대학 30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전국 지방대 중에 혁신 의지가 강하고 역량 있는 곳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학과 체계로는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 등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 산업·사회와 연계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뒀다.

현재 예정된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7월 중에 10개 내외의 글로컬대학을 선정한다. 2027년까진 모두 3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대학에는 1곳당 5년간 약 1000억원이 지원된다.

막강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데다 '생존 전략'을 짜는 계기가 될 거라는 점에서 도내 대학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나서고 있는 것은 제주대학교다. 제주도가 올해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며 함께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과 연계해 '글로컬대학'까지 나아간다는 구상이다.

제주대 관계자는 "글로컬대학은 교육 방식이나 연구 지원, 우수교원 초빙 등 전 분야에서 대학을 어떻게 특성화하고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 하는, 대학 교육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RIS와 연계하면서 자원을 어디에 더 집중할 것인지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대와 달리 걱정도 있다. 재정 지원이 일부 대학에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내 한 전문대학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교육부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전체 예산의 20% 정도만 전문대에 배분되고 있다"며 "(글로컬대학 선정·지원도) 그렇게 된다면 혁신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곳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 최초로 시민복지타운광장에 조성된 치매 예방 체험형 테마길.

치매 예방 '기억산책길' 걸어보세요

시민복지타운에 제주 최초 체험형 테마길 조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치매 예방 정보를 담은 공간이 제주 최초로 조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는 오는 24일 제주 최초 치매예방 공원 테마길인 '기억산책길(사진)' 조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억산책길은 모든 연령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 공원 내 치매예방을 위한 테마길을 조성해 치매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인식 개선 및 치매 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추진됐다.

제주시 도남동 제주지방합동청사 시민복지타운광장 일원에 조성된 기억산책길은 약 240m 구간에 치매예방 관련 콘텐츠 총 16개가 마련됐으며 치매 기본정보와 인지 체험활동, 치매 예방정보를 담은 표지판 형태로 설치돼 있다.

제주광역치매센터는 기억산책길을 통해 공원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치매예방법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치매 관리와 극복을 위한 치매 친화적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24일 오후 2시부터 기억산책길 일원에서 제주도 주최 제주광역치매센터 주관으로 기념행사가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치매예방 체조와 OX퀴즈, 기억산책길 걷기 및 인지 체험활동 등이 마련됐으며 참가를 원하는 도민들은 제주광역치매센터 사업개발팀(064-717-2920)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도영기자

교통사고 잦은 7개 노선 교통안전시설물 등 보강

교통사고가 잦은 지방도 노선 등에 대한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읍면지역 지방도 노선 6개 지점을 대상으로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해 '2023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애월읍 큰구릉내교차로, 구좌읍 김녕항입구교차로, 남원읍 태흥리 가원교차로 동측 4가, 대정읍 하모리 삼원공업사입구교차로, 성산읍 수산리 수산교차로, 안덕면 덕수리 덕수2교차로 6개소로 무인교통단속장비, 교통신호등 및 도로안전시설물 등을 보강 설치할 예정이다.

제주시도 올해 연삼로~건주로 교차로 구간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벌인다. 해당 구간은 2021년 6건의 교통사고로 부상자 6명이 발생한 곳이다. 제주시는 총 3억원을 투입해 상반기 안에 신호등 전방 추가 설치를 비롯 점등형 표지병, 노면 색깔 유도선, 미끄럼 방지 포장, 좌회전 차로 추가 운영 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빗방울 머금은 털진달래 춘분인 21일 제주시 한라수목원에 활짝 핀 털진달래꽃 수술에 빗방울이 맺혀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강희만기자

도심에 '제주 SW·AI체험관' 설치

5월 전농로에 정식 개관

제주 도심에서 청소년들이 SW·AI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제주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이 오는 5월에 정식 개관 예정인 '제주SW·AI체험관'(이하 체험관)이다.

체험관은 제주융합과학연구원 분원(제주시 전농로 88) 1층에 자리했다. 총사업비 5억원가량을 들여 기존 ICT교육센터를 리모델링한 시설로 자율주행, 로봇팔, 드론 시뮬레이션, 메타버스, VR공작소, 코딩테이블 등 전시·체험 콘텐츠를 갖추고 SW교육도 진행한다. 지난해 말 구축을 완료한 이후 현재는 시범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은 앞으로 초·중·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피지컬 컴퓨팅 프로그램,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컴퓨터 과학과 알고리즘 등 SW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수학·SW체험 교실을 상설화하고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 대상 '찾아가는 수학체험전'을 동지역 소규모 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학교 1학년 대상 수학 학습 지원 프로그램도 개설한다. 진선희기자

▶**알려왔습니다**=본보는 지난 2월 2일 자 신문에 '장애아 가정 부담 못 더는 발달재활서비스'라는 제목으로 장애 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1회당 단가가 최대 6만2500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제주특별지부와 제주치료교육협회는 서비스 단가는 각 기관마다 다르고, 또 각 기관 내에서도 경력 기준에 따라 서비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동일하게 인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두 단체는 정부 바우처 지원금이 물가·인건비 인상, 제공인력 채용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책정돼 있어 그동안 서비스 회기를 조정하는 형태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기준 8회기를 유지하는 곳은 정부와 지자체의 시설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복지관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발달재활서비스는 치료전문가에 의해 1대1 개별 치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비스 단가의 상당 비율은 치료사의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지원금을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이민 전문 기업
KRC인터내셔널 제주 설명회
2023. 3. 25.(토) 09:50 ~ 14:00 제주썬호텔 2층 더포럼
설명회 주제: 부동산(서던마리나 레지던스), 국제학교(셔턱, 래플스)
*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석자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경품 제공합니다.
YouTube KR 갑부동산 Ch KRC인터내셔널 문의 02.544.0053